

우리말의 아름다움 담은 보물상자

《한국현대시 시어사전》 펴낸 김재홍 교수

내가 믿는 것은 그냥 민주이다. 나는 영웅의 시대가 다시 오기를 바라지 않는다. 민주주의 시대에 영웅은 필요 없다. 민주시대에는 모든 인간이 영웅, 아니 주인공이다.

진보를 흉내내는 반동

박정희 항수는 박정희와 그 후에 군인독재자들의 30여년 뿌리가 그만큼 강하다는 증거이다. 아니 박정희가 봉사한 일제 36년도, 그 후의 이승만독재도, 그 전의 봉건독재도 한 뿌리였으니 그 역사는 더욱 깊다. 그 점에서 우리는 아직도 민주적 인간상을 보편화하지 못했다. 오늘 젊은이들까지 박정희 항수에 젖은 것은 특히 교육과 교육자가 그렇지 못한 탓이다. 적자생존의 경쟁교육 하에서 박정희는 당연히 위인이고 영웅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박정희로 대변되는 지난 반민주시대를 충분히 청산하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 독재 이전에 자연의 상품화와 사회의 군사화로 요약될 수 있는 '반인간의 길'이었다. 이제는 인간의 시대, 시민의 시대여야 한다. 절대적 영웅이 지배하는 노예의 시대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주인일 수 있는 민주주의 시대여야 한다. 그런 '인간의 길'을 가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까지나 영웅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간웅이야기가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선정적 상업주의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며, 반동이 보수, 심지어 진보를 흉내내는 퇴폐적인 사회에 언제나 머물 것이다. ◆

알림

《출판저널》 기사를 뵙습니다.

《출판저널》 편집부 기사를 뵙습니다. 《출판저널》 기사를 기획·취재·정확하는 일에 재능과 의욕을 가진 분을 기다립니다. 서류는 우편으로만 접수하며 서류심사 후 면접일자는 개별통지합니다.

- ▲자 격: 1966년 이후 출생자, 출판·잡지 경력 2년 이상.
- ▲마 감: 7월 21일(월)까지(우편접수)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기명기사가 있을 경우 복사본
- ▲보낼 곳: 서울시 중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내 출판저널 편집부 (110-190)

김재홍(경희대 국문과) 교수가 최근 《한국현대시 시어사전》(고려대출판부)을 펴냈다. 시어(詩語) 사전으로는 국내외를 통틀어 처음으로 발간된 것이어서 학계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시에 사용된 언어들에 가나다순으로 배열해 그 의미와 용례를 밝힌 사전이다. 1921년부터 1995년까지 출간된 시집 만오천여권 가운데 천권이 대상 시집. 어떤 시인이 즐겨 사용하거나 직접 만든 개인시어나, 시인이 되살려 쓴 고어·은어·속어·방언, 그리고 한국 시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상징어 등 1만2천여개의 시어를 그 의미와 용례, 출전과 함께 수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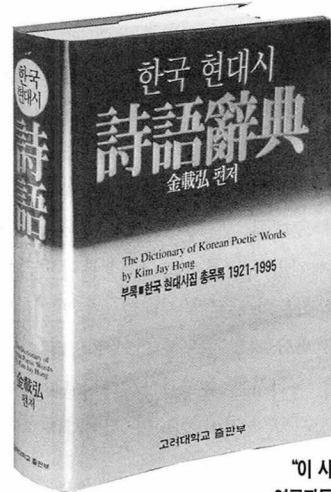
시어의 의미와 용례 밝혀

가령, '밥도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아기들이 밥먹는 습관이 아직 미숙하여 자신의 볼 위에 자신도 모르게 묻혀두는 밥알"이라는 해설이 먼저 나온다. 뒤이어 "밥도장 짙네 첫돌맞이 우리 아기 두 뺨 위에" (나태주, '16', 《막동리 소묘》 p.12)로 인용시의 제목과 시집의 제목, 페이지 수까지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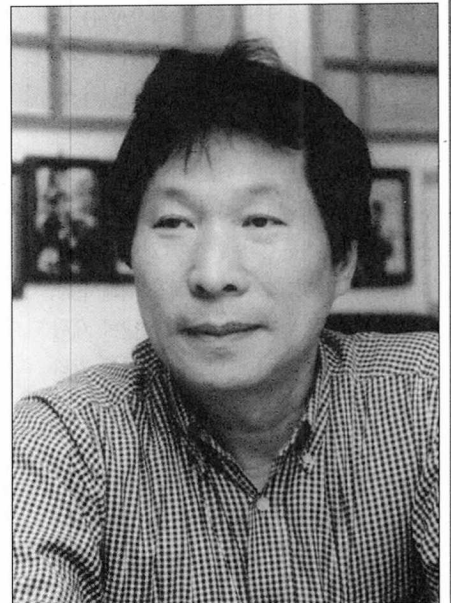
'나비잠' (아기들이 팔벌리고 귀엽게 자는 잠), '기루다' (불쌍하게 여기다/그리워하다) 같은 시인의 개인 조어(造語)나 '너짐' (폐병), '벼루길' (아래에 강물이 흐르는 낭떠러지 길) 같은 고어(古語), '멩아리' (메아리), '보래' (보라색) 같은 방언, 겨울·밤·꽃 등 우리 시에 자주 등장하는 상징어의 용례도 다양하게 수록해 우리 시에 대한 이해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일깨운다.

이 가운데는 기왕에 잘못 해석되었던 시어도 적지 않다. 정지용의 시에 나오는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라는 대목에서 '서리'는 지금까지 '서리 맞은 까마귀'로 해석되었던 것이 통쾌. 그러나 김교수는 '서리'가 '뎨' '무리'의 고어임을 밝힌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은 우리 시의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는 평가다.

"1975년 한용운문학 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도대체 어떻게 의미를 풀어야



"이 사전이 연구자들에게는 기초자료로, 일반인들에게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확인할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할 지 알 수 없는, 사전에도 없는 시어들이 길을 터막 막더군요. 자료도 뒤지고 만해의 고향을 찾아 촌로들에게 자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어의 의미를 밝혀보니 기왕에 나와 있는 분석 가운데 시어를 잘못 이해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시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힌 사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교수는 일제시대 시인들의 시어만 대상으로 하자고 마음먹고 시어를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그런데 이후로 출간된 시집들 가운데도 시어를 조탁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유감없이 표현하는 시인들이 많았다. 내친 김에 이들도 포함시키다보니 일은 자꾸만 늦어졌다. 그래서 20년이 훌쩍 넘어갔다.

김교수는 우선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각 대학도서관 등 국내 주요 도서관과 출판사 및 서점을 뒤지며 국내에서 출간된 시집을 수배했다. 이 쉽지 않은 작업 덕분에 1921년부터 1995년까지 출간된 15,000여권의 시집목록을 연도별로 정리할 수 있었다. 한국 현대시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이 자료는 부록으로 실려 책의 가치를 더한다.

20년 작업의 결실

시집을 읽는 일도, 선정하는 일도, 표제어를 고르고 의미를 밝히고 용례를 찾는 일 어느 하나도 남이 해줄 수 없는 일이어서

김교수는 때때로 숨이 턱턱 막히기도 했다. 몇번이고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렸다는 김교수를 20년이 넘게 사전 편찬 작업에 매달리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시와 우리말에 대한 사랑이다. 시야말로 현실법칙이 아닌 진실법칙에 의거한 유일한 문학 장르이며, 시어는 가장 아름답게 승화된 형태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외롭고 고단한 청년시절 시를 쓰면서 위안을 얻었다는 김교수는 두권의 시집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기도 하다. 지금은 쓰기보다는 읽는 일이 '업'이 되어버린 했지만 그 평생의 업이 기쁨기만 하다. 돈도 안되는 시 전문지 《시와 시학》을 7년째 발간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이 사전이 문학연구자들에게는 우리 시에 대한 올바른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문학지망생 및 일반인들에게는 우리 말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고 실용화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시어사전을 마무리한 김교수는 자그마한 산 하나를 넘은 기분이다. 지금까지 한국 시의 각론적 연구에 쏟아부었던 관심을 이제 통사적 연구로 넓혀나갈 예정이다. '한국 현대 시문학사'를 정리하는 일과 우리 시에 기초한 '시학 사전'을 펴내는 일이 그 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다.

— 박남정 기자